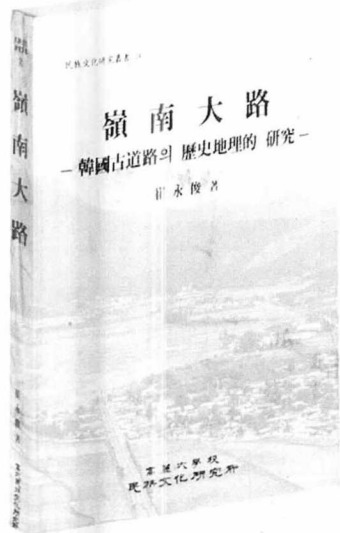


# '길'을 통해 본 영남지역 문화사

「嶺南大路」펴낸 **최영준** 교수



그 외양과 쓰임새는 천차만별이지만 '길'은 인류역사의 기나긴 행보를 증명해주는 가장 평범하고도 구체적인 유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고려대 최영준교수(49, 지리교육학과)가 펴낸 「嶺南大路」(고대민족문화연구소)는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예의 그 '생활사로서의 길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의 서울에서 남한강을 거쳐 낙동강 하곡과 부산을 연결하는, 조선 500여년간 부와 인재의 보고였던 영남지방의 지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단순한 지리학의 영역을 넘어 역사학과 고고학에도 맥을 잇는 하나의 문화사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길은 하나의 문명요소로서 지역 문명사를 표현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특히 왕조시대의 길은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서가 되지요.”

기존의 제도사 중심의 기술에서 탈피해 문화사·생활사에 초점을 둔 최교수는 이 책에서 영남대로 발달의 지리적 배경과 그 역사, 교통양식, 노변취락과 경관의 변이과정, 기능 등을 망라한 방대한 연구작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이 눈에 띄면 연구를 시작한다”는 최교수가 이 방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재학시절 부터였다고 한다. 유학 당시에도 고고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할만큼 평소 역사지리학에 흥미를 갖고 있었던 그가 이번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70년대초.

문경새재만도 40번은 넘었다는 최교수는 비단 지역답사뿐만 아니라 관계문헌과 고지도

관독에도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일제시대의 문헌과 개화기 전후 歐美인들이 남긴 문헌을 비롯해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의 史書는 물론 이려니와 「대동지지」, 「택리지」, 각 도의 읍지·驛誌 등의 지리서와 「목민심서」까지 섭렵한 최교수는 동료국사학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겸손해한다.

이러한 문헌연구만으로 부족한 점을 메꾸는데 무엇보다 도움이 됐던 것은 고지도. 다행히 옛행정구역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는 일제초기의 지도를 구할 수 있어 지금은 거의 폐도가 된 영남대로의 옛모습을 복원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교수가 그 난해한 문헌과의 씨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생한 현장답사이다. 기록에 없는 사실은 아직도 古道를 기억하는 古老들을 만나고 문혀진 자료를 발굴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장수집만큼 의미있는 작업도 없을 겁니다. 죽은 기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선인들이 다녔던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史料연구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신빙성에는 다소 의심이 가더라도 古老들의 고증은 사관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 사료와 비교해 실제 역사와의 불가피한 거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그가 답사의 ‘덕’을 본 일례는 지금까지 간과돼왔던 驛村의 기능과 의미를 밝혀낸 것이다. 최교수에 따르면 역촌은 영남대로의 기능상 가장 중요한 취락의 하나로, 역촌 주민들은 신분상 良人에 속했지만 賤役에 종사하면서 후손에게 세습하는 사회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해 상하의 구별이 없는 평등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직이나 거주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거의 동족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지리학에서는 과거의 교통·통신을 연구함에 있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사실의 해석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로는 제도적 측면보다 주변 주민들의 생활 등 그 실제적인 효율성에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최교수는 영남대로 연구의 초점을 모든 제도가 완비된 ‘안정기’라 할 수 있는 조선후기(17~18세기)에 두고 있다. 당시는 영남대로의 기능이 가장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사 중심의 기술에서 탈피, 문화사 생활사에 초점을 두고 저술한 이 책은 영남대로 발달의 지리적 배경과 그 역사, 교통양식, 노변취락과 경관의 변이과정, 기능 등을 망라한 방대한 연구작업의 결과다. 최교수는 길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민족의 길에 대한 인식이 ‘효용성’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최영준 교수

官撰地理書, 私撰地理書, 각종 지도 등 당시의 교통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양과 부산 동태를 잇는 최단코스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한반도의 대동맥 역할을 한 교통로로서 영남대로를 평가하는 최교수는, 그 특징으로 우선 북쪽으로는 만주와 남쪽으로는 일본의 北九州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갖는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꼽는다. 또한 낙동강과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단일지역지형’인 영남지방과 ‘중앙’을 연결해 줌으로써 지형적 폐쇄성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 지역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일종의 감시망 역할까지 담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영남대로는 문화적 단위로서의 특성을 지닌 교통로로서, 특히 신라천년 왕조의 전통이 뿌리깊게 내려오면서 보수적이고 강한 권력 집착욕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영남지방은 타지역 또는 타기층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소극적·배타적이었으며 문화전수로서의 역할도 거의 일방적이고 침략적이었던 것이 최교수의 해석이다.

사실상 영남대로의 노선이 구체화된 시기를 조선조로 잡고 있는 최교수는, 이 길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길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그 효용성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우리의 옛도로를 허술하고 낙후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외형

에 기초한 기준에 의한 것일 뿐, 깊이 살펴보면 당시 사회 경제사정에 맞추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노복과 노면을 맞춰 설계한 ‘생활도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25나 70년대의 도시화운동으로 영남대로의 흔적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지만 일제시대의 철도나 신작로 건설 당시 이 영남대로를 기본 골격으로 했을 만큼 그 길에 대한 안목은 빼어났다는 것이다.

70년대의 자료까지 밖에는 참고할 수 없었던 학위논문은 비롯해 이제까지 축적된 연구작업의 집대성으로 최교수 자신에게도 의미가 깊은, 원고지 2천5백매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서를 앞에 두고 최교수는 “그동안 대부분 이론과 총론에만 집착해온 학계에 각본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국학연구에 있어 정신·제도적인 것만 강조하고 막상 그 ‘땅’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땅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사학계에서조차도 하나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번 저서를 내놓은 최교수는 앞으로 두가지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하나는 이번 작업의 연장으로 계속되는 전라도 지역에 대한 연구요, 또 하나는 자비령을 거쳐 평양과 의주에 이르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정소연 기자